



# 거룩한 사랑

## 잡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은총의 성모님

**거룩한 사랑 잡지**는년 3 회 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출판됩니다. 앞표지에 특집기사로 다룬 것은 천사들이 그분 앞에 정중히 인사하는 은총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은총의 성모님의 아름다운 흰색의 성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 잡지**

2016년 9월 ■ 10월 ■ 11월 ■ 12월

제3권 제3호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2쪽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	3쪽
시편 91장 11절	6쪽
영적 여정 - 제19편: 여섯째 심방	7쪽
하느님의 자비 축일	9쪽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10쪽
마라나타 성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12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 중앙 시설: 440-327-8006
- 선교회 팩스: 440-327-8017
- 메시지 신청: 440-327-5822
- 기도 신청: 440-327-8039
- 선교회 연락: mamshl@holyllove.org
- 기도 신청 아-메일: prayers@holyllove.org
-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 거룩한 사랑 잡지: magazineeditor@holyllove.org
-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www.holyllovekorean.com
-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입니다.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

## 2016년 10월 7일

### 알림

“나는 나의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 [목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시작되는 자정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별판 성지를 방문할 것이다. 나는 모든 참석자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 축일 (10월 7일)에 너(모린)에게 발현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번민에 싸여 기다리는 세상에 메시지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목주기도가 필요하다. 부디 참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2016년 7월 27일)

### 2016년 10월 7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전부 흰 옷을 입고 오셨으며 주위에는 반짝이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큰)태아목주의 테두리 안에 계시며 태아목주를 들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가 목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 나라의 다가오는 선거는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치적 선거전에서의 결과를 좌우하려고 노력하는 악의 저의가 존재한다. 위협과 약속 들이 이미 내려졌다. 법은 위반되고 제도 전체가 부정 정치로 인해 타협되고 있다. 어떤 마음속 야망은 유달리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 적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나 물건)는 타협된 진리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절대로 그들의 그릇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을 부정직한 정치인들을 지지한다. 만약 이들이 리더십을 떠맡을 정치인이라면, 번영과 자유의 길에서 많은 것들이 손실될 것이다.”

“싸움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정반대로 대립된 형태의 정부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하나가 정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 타협된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빛 그 자체에 의해 인도되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악을 드러내고 사탄의 악한 계략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너희 손에 들고 있다. 그것은 너희의 목주다. 너희의 애정어린 목주기도들의 힘으로 사탄은 세상의 파멸을 위한 그자의 계략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고 그자는 패배할 것이다. 용 · 사탄이 파괴하려고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어둠을 뚫고 빛의 길을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선교회와 메시지들 자체가 태내의 생명의 보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유는 낙태에 대한 합법적인 승인이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이기심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계명들의 이행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 인류의 자유의지 선택이 주된 우선 사항이다. 죄 많은 삶으로 이끄는 권리의 보호는 최고의 법원 체제에 침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차이를 애매하게 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세상의 양심이 너무나 혼란되어 리더십이 정직과 부정직을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무능한 리더십이 양자택일의 여지가 있고 이 나라의 다가오는 선거에서 고려되기까지 하는 이유다.”

“중대한 양보가 악에게 있어 왔다. 이제 하느님보다 사탄이 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용감하게 꾸준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는 일부 의로움의 약한

형태에 있는 이 나라를 떠받치는 밸러스트(ballast, 배의 바닥짐, 마음의 안정감) 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태아묵주 기도에 대한 너희의 신심을 복돋우기 위해 오늘 너희를 여기에 불렀다. 너희는 너희의 기도들이 너희 주변 온 세상에 주고 있는 중요한 영향을 믿어야 한다. 첫째 봉인(묵시 6:1-2)의 개봉은 너희 기도들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적으로 더 강력하게 한다.”

“요즘 너희 주위의 모든 곳에 위험 즉, 테러리즘(terrorism, 폭력·테러 행위)과 너희 국경 지대를 침해하고 있는 큰 허리케인(hurricane, 열대성 저기압, 태풍과 같은 위력)이 있다. 마음속에 숨겨진 위험들과 일정한 정치인들의 마음에 많은 부정직한 안건들이 있다.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가 낙태는 세상을 파멸로 향하도록 캐터펄트(catapults, 노포;투석기)를 쏘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혼란의 안개가 세상의 마음에서 걷히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낙태를 종식시키는 데에 더 강해지고 더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면 크고 많은 은총들이 세상에 넘쳐 흐를 것이다. 미래가 변화될 것이고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마음들을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모든 걱정을 천국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의 성심에 놓을 것을 약속한다. 어떤 은총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은총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발현들 동안에 너희와 함께 이 짧은 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너희의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내가 항상 너희 각자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저녁 7시 기도모임



눈물의 호수



아버



마라나



흰색의 마돈나 경당





마라나타 샘과 성지



행렬



십자가의 길



지 하느님의 경당



타 샘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오후 3시 기도모임



\* 요한 묵시록 6:1-2 [처음 여섯 봉인]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성경)



# 시편 91:11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201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거일에 무수한 천사들을 세상에 파견할 것이다. 그들은 각 투표소마다 다 배치될 것이며 그들의 보호에서 지치지 않을 것이다.” ■

2016년 10월 20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너희의 협력이 필요하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기표소 (투표 용지 기입소)마다 다 천사들을 배속할 것이다. 이 천사들은 투표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선거일에 하루 종일 이 천사들에게 기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천상의 천사들이시여, 당신들은 이 선거와 각 투표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보고 있나이다. 각 투표자가 선과 악 사이에 선택을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주소서. 진리를 반영하는 선을 선택하겠다는 투표자들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소서. 아멘.” ■

2016년 11월 16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천상 어머니인 나는 이번 악에 대한 선의 선거에서 각 투표자와 각 투표마다 다 지켰던 성스러운 모든 천사들에게 계속 감사하고 있다. 너희 또한 진심으로 천사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



© 2016 by Maureen Sweeney-Kyle

# 제19편 - 영적 여정

##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에 잠김 (제1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의 이 논문 시리즈의 제18편의 끝에서, 우리에게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이고 마지막 심방을 소개하는 두 메시지로 다섯째 심방의 영성에 대한 토론을 마쳤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2007년 4월 2일에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 사이에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다섯째 심방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입니다. 두 뜻이 하나가 될 때 그것들은 하나 되신 성심의 성화상에서 두 성심처럼 아직도 독립된 본체로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여섯째 심방은 훨씬 한도를 넘습니다.”

“여섯째 심방에서 인간의 의지는 하느님의 뜻에 잠기고 그렇게 하여 그것들은 이를테면 혼합됩니다. 더 이상 하나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바로로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어진)에서 한층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즉, 나의 성심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너희 앞에서 있다. 이 짧은 말을 너희에게 알린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섯째 심방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통하여 그분의 자애로운 성심 (여섯째 심방) 과 일치한다. 이 신성한 진리를 넘어 뚜렷한 다른 계시는 없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은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일련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 밝혀진 비밀” (제2판) 소책자로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섯째 심방과 관련하여 토론되었습니다 (이 논문 시리즈 제17편 참조).

이 소책자의 14쪽에 “여섯째 심방, 곧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이고 가장 높은 천국의 계시는 2003년 4월에

시작했다.” 고 진술합니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섯째 심방에 대해 너희에게 설명하기 위해 왔다. 이 심방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이다. 이 심방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른 모든 심방들을 감싼다. 이 심방에 하느님의 약속인 사랑의 새 계약이 있다. 이 여섯째 심방에 이른 영혼들은 가장 높은 천국에 도달하고 있다. 이승에서는 이미 신성·성덕에 이른 영혼들을 위해 이 여섯째 심방이 지정되어 있다. 내세에서는 다섯째 심방에 도달했던 성인들과 사랑의 순교자들이 가장 높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성심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모든 심방을 감싸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각 영혼이 이 가장 높은 천국에 잠기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메시지는 그 다음 날 2003년 4월 2일에 말가레타 마리아 알라콕 성녀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성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심방은 하느님의 뜻인 하느님의 성심의 포용입니다. 영혼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더 깊이 들어올 때, 성부 성심의 포용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첫째 심방에 끌어들여질 때 그는 성부의 포용이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 뒤이어 일어나는 각 심방은 영혼이

성부의 포용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각 영혼을 **가장 높은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 더 깊이 이동하면 이동할 수록 영혼은 더욱더 그가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를 의식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2004년 9월 25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에서 **여섯째 심방**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메시지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셨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모든 심방**은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영혼이 이 성심의 심방에 깊이 잠기면 잠길 수록, 더욱더 그를 위한 성부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인 **다섯째 심방**에 도달할 때, 그는 하느님의 뜻 자체로 변합니다. 이 일치는 영혼을 아버지의 뜻과 합일하게 합니다. **여섯째 심방**인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부 성심의 즉위입니다.”

“영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더욱더 영혼이 죄나 인간의 결점을 통하여 뒤로 미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섯째 심방**에 도달한 영혼들은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영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천국이라고 부르시는)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목표가 아니고 그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의 은총에 의해서 즉,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2003년 4월 2일**에 주신 **여섯째 심방**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은총을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과 관련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여섯째 심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혼자 힘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혼란에 부딪힌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아버지의 뜻인 **여섯째 심방**은 다른 모든 심방을 품고있다. 그럼에도 그 심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심방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여섯째 심방**은 **가장 높은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겠느냐? 거룩한 사랑인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은 어느 정도는 내 아버지의 뜻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심방이 그러한 것처럼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죄악과 방자함을 걸러서 제거하는,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매달리도록 도와주는 체로서 활동하신다. 이어지는 각 심방에 관해서는 영혼 자신의 더 많은 의지가 그 ‘체’를 지나가고, 더 많은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채운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불타고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 존재한다.”

시현자 (示現者,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 자매가 **2003년 5월 10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강연에서 확인하셨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께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느님, 저에게는 당신의 것 외에 다른 의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실로 하느님 안에서 잃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2003년 4월 2일**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에 불타고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 존재한다.”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가장 높은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기를 청하고 있다. 나는 인간 언어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한 개념이나 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체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체험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결코 이 체험에 이르지 못한다.”

**2003년 4월 2일**에 주신 세 번째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시어 **여섯째 심방**의 역할에 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체험을 다음과 같이 더 한층 설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은 **첫째 심방** 밖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의 뜻은 영혼을 거룩한 사랑의 심방인 정화로 끌어당기십니다. 더욱이 하느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영혼을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영혼이 하느님 뜻에 순응하고 그런 다음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 뜻과 일치할 때까지 항상 깊어지고 완덕에 이르면서 한 심방에서 다음 심방으로 바뀌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 장소·공간이 아니고 한 체험 즉,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사는 것의 체험은 오직 단 하나의 심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3년 4월 3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영원하신 성부와 하느님의 뜻과 하나이고

같은 것인)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의 설명에 대해 더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에 대해서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성심**은 그분의 신성한 뜻과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거룩하신 예수성심과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은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 심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 또한 성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첫째 심방**, 즉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 밖에 있는 영혼들에 접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끌어당기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

“한층 더 이해가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도 **하느님의 성심**과 그분의 신성한 뜻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 되신 성심**의 모든 심방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심방**은 이 세상 전체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에게 단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낙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태내에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애를 보호하라.

하느님 뜻과 일치만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잠김**으로서 도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모든 심방을 뒷받침하고 심지어 영혼을 **첫째 심방**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섯째 심방**의 실재, 곧 **하느님의 뜻**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모든 영혼을 **가장 높은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 날인 **2003년 4월4일**에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그 전 날에 주셨던 **여섯째 심방**에 대한 확장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한 줄기의 빛의 상징적인 영상·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린 자매가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모린은 옆에 천사들과 함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의 예수다. 이 빛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심, 곧 그분의 신성한 뜻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천국으로부터 땅에까지 이르고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모든 심방들을 통해서 비친다.”

“하나 된 성심과 그 속에 있는 심방들은 오직 이 빛을 통해서 존재한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참조, 3 페이지)

성심인 이 빛의 원천에 **여섯째 심방**이 있다. 이 심방의 권능은 다른 모든 심방들로 널리 퍼진다. 따라서 영향력은 세상 너머서까지 이르러 죄인들을 티없으신 내 어머니의 성심인 거룩한 사랑으로 끌어들이다.”

“**여섯째 심방**의 빛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승리가 임할 때에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느님 뜻에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영혼들이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에 거주 할 수 있다는 과정이나 체험에 대한 설명에 기준하여, 이러한 영혼들의 이 지극히 뜻 깊은 **가장 높은 천국**에 도달함에 따라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에 관계하여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응답될 것이고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을 체험하는 이 영혼들의 영성에 대한 다른 국면들이 이 논문 시리즈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의 다음 부분 (**제20편**)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이 성지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위한 편애의 장소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전 세상에서 이제 이런 성지는 수가 적어진다. 으뚝으로 정선(精選)된 은총들이 여기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 성심속 깊은 곳이 이곳 성지를 향해 열린다. 내 아드님께서는 또다시 **하느님의 자비 축일** [2017년 4월 23일] 오후 3시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별판에 발현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 각자를 갈라지게하고 분열시키는 차이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동선에 기대하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오기를 초대한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어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일치는 하느님께로 이끌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님, 2017년 2월 4일)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www.RosaryOfTheUnborn.com](http://www.RosaryOfTheUnborn.com)

가격: 5단 태아목주 - \$29.95 (S&H 추가), 1단 태아목주 - \$12.95 (S&H 추가)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2016년 12월 12일-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 공고

“나는 내 축일인 12월 12일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나는 은총의 가득찬 보충과 위로의 말을 가져올 것이다.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12월 12일이 시작되는 자정에 별판에 모이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과달루페 성모님, 2016년 10월 15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 성모님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 나라는 다행히도 이 나라가 기초하여 설립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으며 강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신앙을 상기시킨다는 구실로 교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성체성사의 실재적 현존, 죄, 개인의 거룩함은 강조되지 않는다. 계명들은 가치가 없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매체는 죄가 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을 지지하고 설교단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내가 수세기 전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했을 때 종교개혁이 진행 중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들이 유아 때부터의 많은 가톨릭 교도보다 더 강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손상되지 않은 틸마(외투, 망토)에 새겨진 내 화상은 쇠퇴해지고 있는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언급되지 않는다. 나는 애정어린 너희의 어머니로서 이 혼란의 시대에 너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다. 가톨릭 신앙으로서 알려진 신앙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전통을 지지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규칙과 정의의 테를 두르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의 추종자들을 혼란시킨다. 이 두 종류의 교회가 훨씬 더



흰색의 마돈나 경당

뚜렷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룩고 세상으로 넘쳐 흐른다고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을 들어 왔다. 모든 악은 처음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증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에서도 또한 적용된다. 사람들은 부패·타락, 부정, 무질서한 지배에 싫증내면서 다르게 선택했다. 이 선택의 좋은 열매는 곧 분명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세계화’ 용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일치해서 어떤 것을 전 세계로 퍼뜨린다는 의미다. 내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선량(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채플 안에 축복의 지점

요즘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사악한 세계화가 있다. 이것은 모든 정부들을 결합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지도자로서의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정확하지 않은 징후와 약속 들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한다.”

“너희가 여기 이 성지에 올 때, 유용하게 활용되면 너희가 악을 우선하여 선을 결정하게 하는 분별력의 특성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 과달루페의 동정녀로서 너희에게 왔다. 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혼란 상태, 그리고 각 상황은 하느님의 은총에 일치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주어진 은총에 협력하는 것은 영혼에 달려 있다. 모든 은총 중 최대의 은총은 모든 영혼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제공되는 하느님의 자비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은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저녁 나는 또다시 너희가 새 정부의 번영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기를 권한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 행위라도 할 사람들이다. 내가 이 정권을 보호하도록 너희의 기도를 기대한다.”

“나는 오늘 저녁 너희의 청원들을 천국으로 가져가고 내 아드님의 지극히 신성한 예수 성심의 제대 위에 올릴 것이다.”

“나는 여기에 참석해 있는 모두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

# 축일 - 2016년 12월 12일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



행렬



오후 3시 기도모임



행렬



자정 기도모임



행렬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자정 기도모임

# 2016년 12월 5일 마라나타 성지에서 - 크리스마스 파티

